KOTRA 경제통상 리포트

일련번호 : 23-01
발 간 일 : 2023.3.22.
보 고 자 : 베이징무역관 문은혜, 김성애

2022년 중국 對韓 수입 분석

◈ 코로나 여파와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에 의한 내·외수 부진으로 2022년 중국의 對韓 수입은 전년 대비 6.3% 감소
◈ 메모리 반도체 對韓 수입이 전체 對韓 수입 역성장의 주된 원인
◈ 한편, 중국 산업고도화,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에 따라 관련 전기기기, 기계설비, 핵심 소재의 對韓 수입은 가파르게 상승
◈ 2022년 중국 경기부진으로 한국산 구리, 알루미늄 등 금속 수입 증가세는 일시적 주춤
◈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한국산 의료·방역용품 수입은 대폭 증가한 반면, 코로나 충격과 시장경쟁 가열화로 對韓 화장품 수입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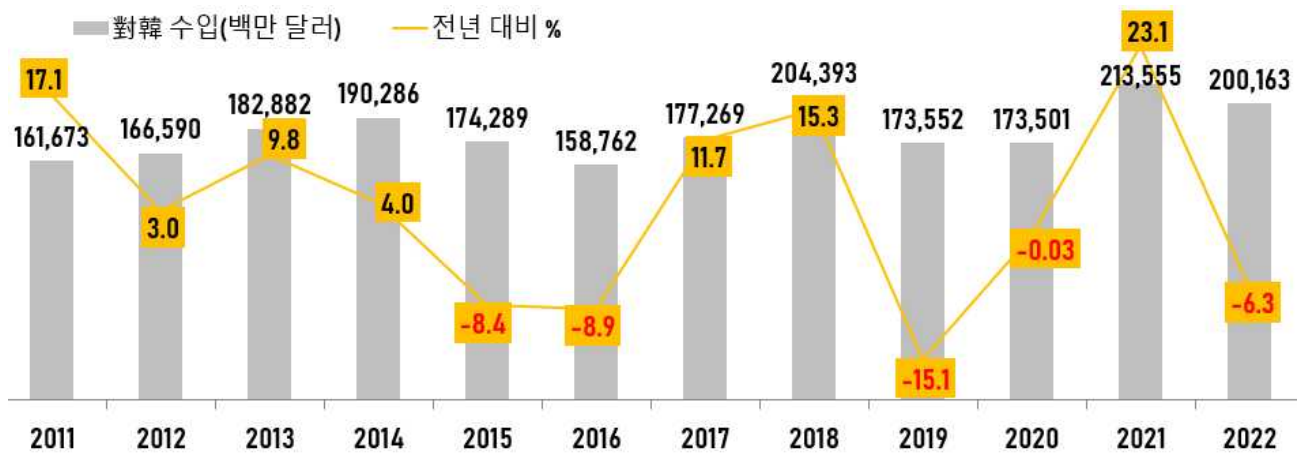
※ 본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 수요와 중국 수입시장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중국의 수입 통계에 기반해 중국의 對韓 수입동향을 분석함

1. 2022년 중국 對韓 수입실적

□ 중국의 對韓 수입금액 2년 연속 2천억 달러 달성

○ 2022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**전년 대비 6.3% 감소한 2,002억 달러**
- 2021년 중국 수출입 활황으로 23.1%의 신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 기록
- 2022년 **중국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조치,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에 따른 중국 내외수 부진으로 對韓 수입도 마이너스로 전환**

<중국 對韓 수입액 추이>

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□ 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7.4%의 점유율로 2대 수입 대상국

○ 2022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0.6%p 감소했으며 1위인 대만과의 격차는 1.5%p

-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한 이래 2019년까지 중국 최대 수입 대상국 유지
- 2020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대만, 일본에 이어 3위에 랭킹
- 2021년~2022년 2년 연속 대만의 뒤를 이어 2위 유지

<중국의 5대 수입대상국/지역>

순위	수입 대상국/지역	2022년 수입액 (백만 달러)	수입시장점유율(%)				증감률(%) '22/'21
			2019	2020	2021	2022	
전 세계		2,715,538	100.0	100.0	100.0	100.0	1.4
1	대만	240,239	8.4	9.8	9.4	8.9	△4.5
2	한국	200,163	8.4	8.4	8.0	7.4	△6.3
3	일본	184,831	8.3	8.6	7.7	6.8	△10.3
4	미국	177,653	5.9	6.6	6.7	6.5	△1.0
5	호주	140,707	5.8	5.6	6.1	5.2	△13.2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2. 중국의 對韓 수입품목 분석(HS 6단위 기준으로 품목 분석)

□ 메모리 반도체(전체 對韓 수입 비중 1위)의 수입 감소가 對韓 수입 역성장의 주된 원인

○ 2022년 對韓 수입 10대 품목 중, 1위 품목(전체 對韓 수입 비중 24.1%)인 메모리 반도체가 최대 낙폭(△12.2%)을 기록

- 팬데믹 3년간 연평균 증가율(2.9%)도 전체 對韓 수입 증가율(4.9%) 하회
- 전체 對韓 수입에서 1/4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, 메모리 반도체 수입 부진이 중국의 對韓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○ 이와 대조적으로 **2위 품목인 컨트롤러 반도체는 지난해 16.5% 증가했으며 팬데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7.5%**에 달함

- **3위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2022년 역성장**했으나 **팬데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4.8%로 전체 對韓 수입증가율(4.9%)을 크게 상회**
- 그밖에 한국산 TV/카메라 수신장치용 부품, 집적회로 증폭기 등 품목은 견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드드라이브/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팬데믹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.4% 기록

<중국의 10대 對韓 수입품목(HS 6단위)>

순위	품목 (HS)	'22년 수입액 (백만 달러)	전체 對韓 수입에서의 비중 %				증감률(%)	
			2019	2020	2021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對韓 수입		200,163	100.0	100.0	100.0	100.0	△6.3	4.9
1	메모리 반도체(854232)	48,306	25.6	25.8	25.8	24.1	△12.2	2.9
2	컨트롤러 반도체(854231)	22,434	6.2	7.3	9.0	11.2	16.5	27.5
3	시스템 반도체(854239)	9,427	3.6	4.8	4.7	4.7	△6.4	14.8
4	TV/카메라 수신장치용 부품(852990)	6,615	1.3	1.7	2.5	3.3	24.9	43.7
5	파라자일렌(290243)	4,736	3.2	1.8	2.1	2.4	6.7	△5.4
6	무기산염(284290)	4,367	0.5	0.7	0.8	2.2	169.7	75.3
7	집적회로 증폭기(854233)	4,331	1.1	1.7	1.8	2.2	12.7	30.8
8	하드 드라이브/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(847170)	4,241	1.3	1.6	2.0	2.1	△2.4	24.4
9	PC 부품(847330)	4,137	2.4	2.5	2.2	2.1	△11.5	△0.3
10	전화기 부품(851779)	2,932	-	-	-	1.5	-	-

*주: HS 851779는 2022년 신규 조정된 HS 코드로 전년도와 비교불가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□ 중국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라 관련 품목의 對韓 수입 증가세

○ 2022년 중국 **對韓 수입 10대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무기산염**으로 169%의 증가율을 기록

- 2022년 중국의 한국산 무기산염 **수입금액은 43억 6,673만 달러**로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인 **2019년의 5.4배 수준**

– **중국 태양광 모듈, 이차전지 수요 급증**으로 태양광 전지 소재인 카드뮴 텔루라이드,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인산철, 리튬-니켈-코발트-망간 산화물의 對韓 수입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됨

* 태양광 전지 소재인 카드뮴 텔루라이드,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인산철, 리튬-니켈-코발트-망간 산화물 등은 유기화학물(HS 28) 중의 무기산염(HS 2842.90)으로 통관

○ 실제로 전기차 시장 호황에 힘입어 중국의 **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수입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세자릿수 성장세**

– 전기차 리튬 배터리 전해액의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인 육불화인산리튬의 對韓 수입금액은 3년간 12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1억 달러에 육박

– 또한 지난해 인산염, 탄산리튬의 對韓 수입 역시 각각 2,204.3%, 168.5% 급증하며 각각 4,243만 달러와 3,482만 달러를 기록

<중국의 對韓 배터리 핵심 소재 수입동향>

품목		對韓 수입(천 달러)		증감률(%)	
HS 코드	품목명	2019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282690	육불화인산리튬	7,654	93,507	34.5	130.3
283529	인산염	569	42,431	2204.3	320.9
283691	탄산리튬	3,392	34,815	168.5	117.3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□ 송수신기기 등 일부 주요 對韓 수입품목의 성장 여전

○ 중국의 新SOC 구축 가속화, 전자·기계산업 첨단화 추세에 맞춰 전기기기, 기계설비, 플라스틱 등 **중국의 주요 對韓 수입품목은 안정적 신장세 유지**했으며 **일부 품목은 세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**

– 지난 3년간 중국 **송·수신기기**의 對韓 수입금액은 **연평균 100%의 증가세**를 보였으며 지난해 13억 1,160만 달러를 기록

– 한국산 **전력 저항기** 수입은 코로나 이전의 1,443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5,973만 달러로 **30배 이상 급증**

- 반도체/휴대전화/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탑재하는 탄탈럼 축전지의 對韓 수입은 지난해 15배 이상 폭증하며 4,805만 달러 기록
-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, 자동 와인더, 기타 캘린더링, 초산비닐 공중합체 등 품목도 팬데믹 3년간 연평균 세자릿수의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며 1천만 달러 상회

<2020~2022년 연평균 증가율 100% 이상의 중국 주요 對韓 수입품목>

구분	품목		對韓 수입(천 달러)		증감률 (%)	
	HS 코드	품목명	2019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전기기기	851762	유/무선 송신기기, 광통신모듈, 수신기	160,577	1,311,600	61.5	101.4
	853321	전력 저항기	14,434	459,734	129.6	217.0
	853221	탄탈럼 축전기	3,084	48,048	1528.0	149.8
	853590	전기회로 개폐용/보호용/접속용 기기(전압 > 1,000V)	1,166	13,199	61.9	124.5
기계설비	844540	자동 와인더	526	17,108	135.2	219.2
	842099	기타 캘린더링/ 압연 기계용 부품	1,675	13,598	546.4	101.0
자동차	870323	승용차 (실린더용량 1500~3000cc)	127	76,577	159.8	744.8
사진용 재료	370790	사진용 화학조제품 (반도체/OLED 제조용, 인쇄제판용 현상제)	48,563	614,576	2.4	133.0
	370244	롤 모양 사진필름 (영화필름, 인쇄제판용/ 인쇄회로기판용 필름 등)	163	32,751	△7.0	485.7
플라스틱	390591	초산비닐 공중합체	601	16,975	199.3	204.5
철강	721891	스테인리스강 (횡단면이 직사각형)	13	70,323	231.1	1655.4
	720852	철/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(두께 4.75~10밀리미터)	1,457	11,837	129.4	101.0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○ 사진용 재료의 對韓 수입은 2021년까지 고공 행진했으나 2022년 성장세가 크게 둔화

○ 지난 3년간 스테인리스강(횡단면이 직사각형), 철/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 철강재의 對韓 수입은 연평균 1,655.4%, 101%의 급증세를 보였으며, 2022년 對韓 수입금액은 7,032만 달러와 1,184만 달러로 나타남

□ 의료용품·소비재 수입: 코로나 여파로 명암 갈려

○ 코로나 여파로 한국산 의료·방역용품 수입은 3년간 가파른 상승세

- 코로나 이전 중국의 對韓 **혼합 면역약품 수입**은 4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**2022년 3,287만 달러** 기록
- 헤파린 수입은 연평균 1,704%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해 1천만 달러 돌파
- **의료 진단기기**의 對韓 수입도 코로나 이전의 275만 달러에서 4,181만 달러로 **3년새 14배 급증**

○ 대표적 방역용품인 **마스크**의 對韓 수입은 **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 따라 등락**

-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중국의 對韓 마스크 수입은 전년 대비 3,352.9% 급증하며 2억 1,746만 달러까지 확대됐다가 중국 마스크 생산능력 확대, 코로나 진정세로 對韓 수입금액이 약 2억 달러 감소
- 2022년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년 대비 19.7% 증가하며 2천만 달러 기록

<중국의 K-의료·방역용품 수입동향 >

구분	품목		對韓 수입(천 달러)		증감률(%)	
	HS 코드	품목명	2019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의약품 및 의료기기	300214	혼합한 면역물품	4	32,868	233.0	1917.9
	300190	헤파린 등 장기요법용 선(腺)	2	11,741	139.0	1704.0
	901819	의료진단기기(청력검사용, 뇌파계, 혈압 측정 등)	2,746	41,809	18.2	147.9
방역용품	630790	마스크	6,298	21,087	19.7	49.6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○ 팬데믹 기간 K-푸드의 대중국 수출은 호조세 지속

- 한국산 **라면 수입규모는 코로나 이전 대비 6천만 달러 늘었으**며 말린 과일·과일 통조림의 對韓 수입도 매년 두 자릿수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
- **한국산 식사 대용 식품·간편 식품 수입**은 코로나 이전의 5,742만 달러에서 **약 3배 수준**인 1억 5,842만 달러로 확대

○ 한국산 게임기 수입 규모는 3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해 3,307만 달러에 달함

<중국의 K-소비재 수입동향 >

구분	품목		對韓 수입(천 달러)		증감률(%)	
	HS 코드	품목명	2019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식품	190230	라면	124,597	183,368	19.7	13.7
	200830	말린 과일/과일 통조림	13,486	19,294	14.9	12.7
	210690	기타 식품 (간편 식품, 식사대용식품 등)	57,420	158,424	17.1	40.3
화장품	152000	글린세린	5,273	18,467	3.4	51.9
	330499	기초 화장품	2,912,210	2,433,694	△35.0	△5.8
	330420	눈 화장품	52,274	55,773	△3.4	2.2
	330491	파운드	42,729	44,029	△13.7	1.0
오락	950490	게임기	3,069	33,071	16.7	120.9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○ 반면, **K-뷰티 수입은 코로나 여파와 경쟁 가열화 등 요인으로 부진**

-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강세 품목이었던 **기초 화장품은 팬데믹 3년간 연평균 5.8% 감소**함. 특히 **작년엔**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전년 대비 **35% 대폭 감소**
- 한국산 눈 화장품, 파운드 수입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~2%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작년엔 각각 3.4%, 13.7% 감소
- 팬데믹 기간 중국 화장품 수입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지만 **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9년의 23%에서 2022년 14.3%로 감소**한 것은 K-뷰티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
- 대조적으로 화장품 원료인 글린세린의 對韓 수입은 3년간 2배 이상 증가

□ **구리, 알루미늄 등 금속의 對韓 수입은 2022년 중국 경기 부진으로 소폭 하락**

○ 구리, 알루미늄 등 금속제품의 對韓 수입은 **팬데믹 기간 배증했으나 지난해 중국 경기부진으로 상승세가 꺾임**

– 구리제품 중 **정제구리만 2022년에도 200% 이상의 오름세**를 유지하고 기타 제품은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

– 알루미늄 제품 중 알루미늄 합금의 대한국 수입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기록

○ 백금족 귀금속인 **로듐*의 對韓 수입은 3년 만에 35배 이상 폭증**했으나 **지난해는 3.2% 소폭 증가**한 데 그침

* 가솔린 차량 정화장치, 석유화학물질 촉매, 유리 강화용 첨가제 등으로 쓰임

<중국의 對韓 금속제품 수입동향 >

구분	품목		對韓 수입(천 달러)		증감률 %	
	HS 코드	품목명	2019	2022	'22/'21	'20~'22 연평균
구리	740311	전기동	935,333	1,841,067	△7.9	25.3
	740200	미정제 구리	14,531	303,664	△0.1	175.4
	740319	정제구리	340	11,427	212.9	222.7
	740321	미가공 구리-아연 합금	47,558	98,171	△16.5	27.3
	740819	정제한 구리 선	39,258	58,971	△18	14.5
	741021	구리 호일(두께<0.15㎜)	173,844	283,899	6.6	17.8
알루미늄	760200	알루미늄 스크랩	26,969	86,835	332	47.7
	760612	알루미늄 합금판(두께>0.2㎜)	177,186	675,959	31.9	56.3
	760120	알루미늄 합금	29,899	305,337	△7.2	117.0
	760711	알루미늄 포일(두께<0.2㎜)	32,323	68,480	8.8	28.4
귀금속	711031	미가공 로듐	1,182	43,148	3.2	231.7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3. 전망 및 시사점

□ **중국의 리오프닝을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 필요**

○ 반도체 불황,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 산재로 2023년 중국의 對韓 수입의 극적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통해 대중 수출 돌파구 모색 필요

- 팬데믹 기간 중국의 탄소중립 전환, 산업 첨단화 수요에 맞춰 관련 품목의 對韓 수입은 세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냄
-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중국의 산업생산, 소비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구리, 알루미늄 등 중간재는 물론, K-소비재 수요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
- 중국의 소비 진작, 내수 확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

□ **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에 맞춰 對中 수출구조 개혁 추진 필요**

○ **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·체계적으로 대응**하고 중국기업과의 **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**

-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은 기술력 강화를 통해 **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향 이동 중**
- 2020년부터 중국의 **자립형 공급망 구축 가속화**에 따라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중심으로 기술력 강화를 통해 빠르게 **자급률 제고**

  * 예: 中 對韓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은 2019년의 9억 달러→2022년 3억 4103만 달러로 급감, 배터리 부품 수입은 8,910만 달러→1억 4,958만 달러로 증가

- **경제적·지정학적 분절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**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**중장기적 대비** 필요

.끝.